



08-17 (통권 295호)

2008.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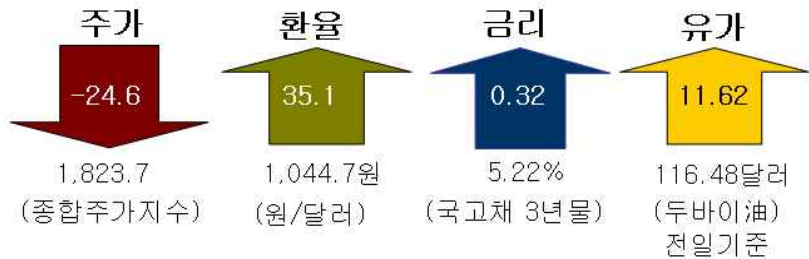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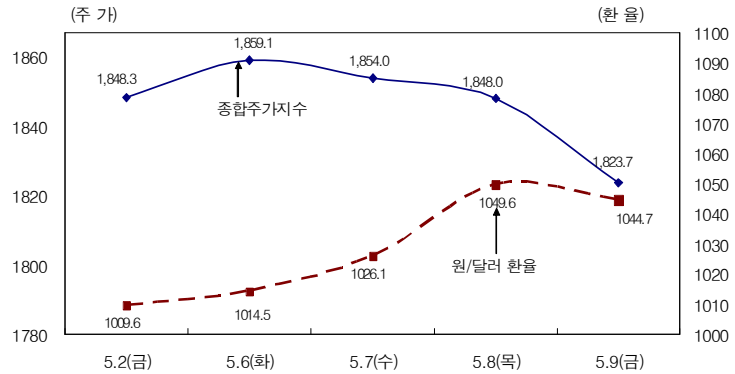
# 韓國經濟週評



■ 2008 북한 곡물 조달부담 급등과 정책적 시사점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5.2~5.9)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08 북한 곡물 조달부담 급등과 정책적 시사점	1
주간 경제 동향	21
□ 실물 부문 : 경기하강 초기국면 진입	21
□ 금융 부문 : 원/달러 환율 연중 최고치 경신	22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3669-4121, swhan@hri.co.kr)  
 □ 거시경제실       :   조 호 정 연구원           (3669-4047, chjss@hri.co.kr)

## Executive Summary

### □ 2008 북한 곡물 조달부담 급등과 정책적 시사점

#### 1. 문제 제기

최근 들어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곡물가격의 급등은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업국의 식량 수요 증가,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 생산 확대 등 수요 요인과 지구 온난화에 의한 작황 부진과 식량 자원화 추세 등 공급 요인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곡물가의 급등은 1995년 이후 곡물 부족분을 대외조달에 의존해 왔던 북한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의 원조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곡물가 급등으로 인하여 상업적 수입 능력마저도 제한되어 2008년 북한의 식량 사정은 1995년에 못지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을 진단하고, 곡물가 급등에 따르는 지원부담 규모를 추정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북한 곡물 수급의 현황

(과거 추이) 북한은 1994/1995 양곡년도 이후 2006/2007년까지 연평균 127~250만톤의 곡물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다.(127만톤은 기초 대사를 위한 최소 소요량, 250만톤은 세계보건기구 권장의 정상적 소요량) 최소 소요량 대비 곡물 자급률은 80% 수준이다. 북한은 부족한 곡물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여 수급을 맞춰오고 있는데, 조달 규모는 연평균 123만톤 수준에 달한다. 북한의 곡물 조달 내용을 보면, 무상 또는 차관 형식의 개별 국가별 지원이 연평균 74만톤(한국 지원분 22만톤 포함), 국제기구 지원 40만톤, 상업적 수입 8만톤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2008년 현황) 북한은 2007/2008 양곡연도에도 최소 119만톤의 곡물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다.(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정상적 에너지 섭취량 기준으로는 27만톤 부족) 이같은 곡물 부족 상황을 '고녀의 행군' 시기인 1990년대 중후반과 비교하여 보면, 북한내 곡물 수급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고녀의 행군' 시기 북한내 수급은 연평균 147만톤(1995/1996년은 170만톤) 공급부족이었으나, 2007/2008년도에는 119만톤 공급부족이다. 1인당 최소 소요량 167kg으로 환산할 경우 '고녀의 행군' 시기는 연평균 880만명분(1995/1996년은 1,018만명분), 2007/2008년은 713만명분에 해당하는 식량 규모이다.

#### 3. 북한의 부족 곡물 대외 조달상의 문제점

첫째, 최근들어 국제사회의 대북 곡물 지원이 급감하고 있다. 1995~2004까지는

유엔합동호소에 의하여 대규모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졌다. 동기간 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총액은 연평균 1억 5천만 달러이며, 이중 90%인 1억 3천만달러 정도가 식량지원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를 당시 국제 곡물시세를 감안하여 물량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약 75만톤에 해당한다. 그러나, 2005년 이후 국제사회 지원이 개별지원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대북 지원액이 연평균 5천 5백만달러 수준으로 급감했을 뿐더러 그중 식량지원은 1천 1백만달러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북한의 식량 수급 상황은 1995년보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2008년 들어서 중국이 식량 수출 억제 정책을 추진하여 한국의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둘째,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국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태국산 쌀의 국제시세는 2000/2001 양곡년도 평균 톤당 184달러에서 2008.3월 현재 520달러까지 급등했다. 옥수수 가격도 동기간 톤당 82달러에서 219달러까지 상승했다. 또한 국제 해상운임도 상승하여 추가적인 가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곡물 지원 부담도 급증할 전망이다. 북한의 자국내 곡물 수급 부족량(170만톤)은 1995/1996년도에 국제시세로 환산할 경우 4억 3,500만 달러에 달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0년대에는 1억 7,000만 ~ 2억 2,000만달러 내외에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7/2008년도는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여 곡물부족량의 국제시세 환산액이 또 다시 4억 4,000만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정상적 소비량 감안시 271만톤, 10억달러 추정)

**셋째, 북한의 경제여건상 곡물의 상업적 수입을 위한 자원 부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곡물 수급 부족 규모는 2000년대 들어와서도 100만톤 내외가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북한은 농림어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3%에(2006년 기준) 달하며, 이에 따라 급등하는 곡물가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수입으로 부족분을 자체 충당하기에는 국가 재정이 취약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항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4. 정책적 시사점

**첫째, 인도적 식량 지원은 정치적 상황이나 상호주의 원칙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북한과 단일 민족으로서 북한 주민의 식량 문제를 도외시킬 수 없다. 또한 민족이나 통일 문제가 아니더라도, 한국은 직접적 이해당

사국으로서 북한에서 사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남북간의 정치적 상황이나 신정부의 상호주의 원칙과는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에 대해서 조속한 식량 지원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국제 사회의 대 북한 원조가 급감하고 있는데다가 곡물가 급등으로 북한의 곡물 수입 능력마저 제한되어 올해 북한은 '고녀의 행군' 시기만큼이나 심각한 식량 위기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 중국, 미국, 한국 등 주요 관련국의 원조가 없을 경우 71만명 분에 해당하는 119만톤의 식량 대부분이 부족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셋째, 북한에 대한 남한의 식량 지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07/2008 양곡년도 119~271만톤의 부족식량은 2008년 3월 27일 현재 국제 시세로 환산할 경우 4.4억달러~10.0억달러에 달한다.(원화로는 5천억~1조원) 북한의 핵 문제가 조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부족 식량은 주로 중국과 남한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의 대외 식량수출 억제 정책으로 남한의 부담이 더욱 커질 공산이다. 따라서, 남한 정부는 국제 사회와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관계국의 지원 확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대북 식량 지원 항구화를 막기 위한 농업 생산성 제고 정책이 필요하다** 인도적 차원의 원조에만 의존하는 일방 통행식 교류는 주는 쪽에는 원조 피로감을, 받는 쪽에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와 자구 노력의 동기를 박탈한다. 북한도 남한 수준의 생산성을 달성할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정상적인 에너지 섭취량 수준의 곡물 자급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농기계 및 자재, 비료, 신품종 종자 보급, 노후화된 관개 시설 정비, 경사지 사방사업 실시 등 물자적인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종자 개량, 이모작 확대 등의 기술 지원, 그리고 비료·농기계 등의 생산시설 확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제 곡물가격 급등과 식량자원화 추세에 대응하여 남북한 상생의 농업협력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북한의 곡물 수급 안정성을 도모하고 남한에도 도움이 되도록 상호간의 비교우위를 결합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공동의 해외 농업기지 개발, 비교우위 작물의 교류, 북한 지역내 남한의 자본 및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농업 협력특구 설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

< 2008 북한 곡물 조달부담 급등과 정책적 시사점 >

<b>문제 제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08 양곡연도 북한의 곡물 수급 여건 악화</li> <li>□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대외 곡물 수급 여건 악화</li> <li>□ 매년 반복되는 식량부족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 필요</li> </ul>
--------------	--

<b>북한의 곡물수급 추이</b>	<p>(곡물 수급 부족) 95~06년 연평균 129~250만톤의 곡물 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대사를 위한 최소 소요량: 129만톤</li> <li>- 세계보건기구 권장 정상 소요량: 250만톤</li> </ul> <p>(곡물 대외 조달) 동기간 연평균 128만톤(한국 15만톤 포함)</p>
--------------------	---

<b>07/08 양곡연도 곡물수급</b>	<p>(생 산) 2007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01만톤(FAO 380만 톤)</p> <p>(소요량) 최소소요량 520만 톤, 정상 소요량 651만톤</p> <p>(부 족) 최소 119만 톤에서 최대 271만 톤 곡물 부족</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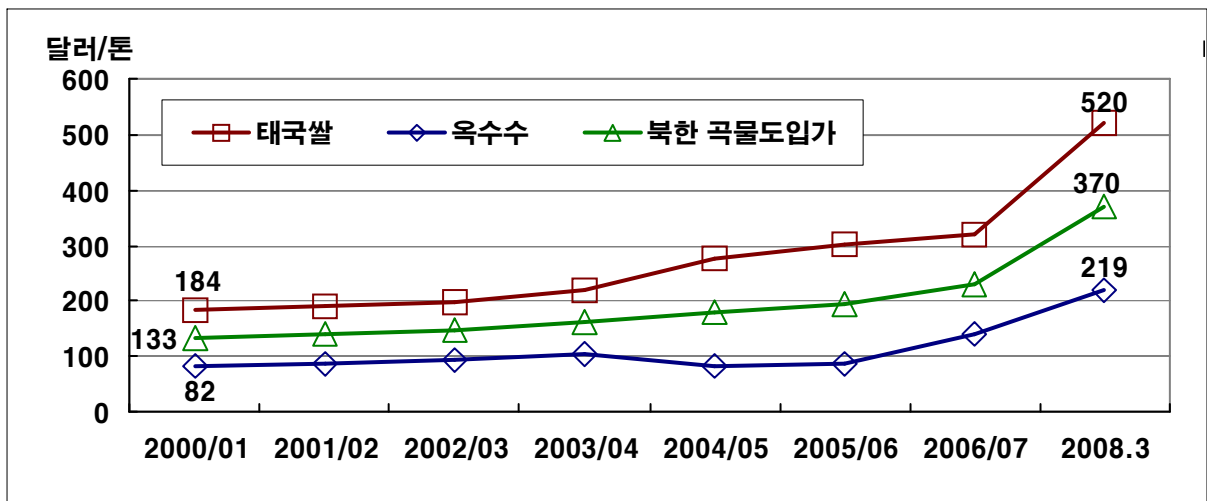
<b>대외 조달의 문제점</b>	<p>첫째, 국제사회의 대북 곡물 지원이 급감</p> <p>둘째, 국제 곡물가 급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부담 급증 (2000년대 연평균 2억달러 내외 → 07/08년도 4.4~10.0억달러)</p> <p>셋째, 북한의 경제 여건상 곡물 수입을 위한 자원 부족 상황 지속</p>
-------------------	--

<b>정책적 시사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 대한 대규모 인도적 식량 지원의 조속한 실행</li> <li>□ 대북 식량 지원부담 최소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li> <li>□ 식량 지원 항구화를 막기 위한 북한 농업생산성 제고 정책 추진</li> <li>□ 남북한 상생의 농업 협력모델 구축</li> </ul>
----------------	--

## 1. 문제 제기

- 2006년 하반기 이후 폭등한 국제곡물가격은 전세계적인 식량 수출제한 및 자원화로 인한 개도국들의 대외 식량조달 어려움을 증폭
  - 국제 곡물가 급등의 원인은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의 수요가 급증하고,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 생산 등임
  -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의한 작황 부진, 생산 원가 상승, 그리고 주요국의 식량 자원화 움직임 등임
  - 이에 따라 2008년 3월 현재, 태국산 쌀은 톤당 520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9%, 옥수수는 219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6.9% 상승
  - 국제곡물가의 급등으로 북한의 대외조달 곡물가격<sup>1)</sup>도 2000년 133달러 수준에서 2008년 370달러 수준으로 178% 상승시킴
- 북한은 1995년 식량 위기 이후 2008년에도 또 다시 최악의 식량 위기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식량난은 곡물 부족량 측면에서는 1995년에 비해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지만,

< 국제 곡물가격 동향 및 북한 곡물도입가 >



자료 : 미국농무부(USDA) ERS.

1) 국제 곡물가격은 태국산 쌀과 국제옥수수 선물가격을 적용, 쌀과 옥수수를 50대 50으로 조달하는 것을 가정



- 최근 국제 곡물가의 급등으로 인하여 국제 사회 원조나 수입 등 부족한 식량의 대외 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북한도 식량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기본 방향과 역점 사업을 발표

<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의 주요 내용 >

시 책		주 요 내 용
2008년 기본 방향		현 시기 인민들의 먹는 식량 문제 해결에 중점
역점사업	작 목	다수확품종 식재, 감자 농사 혁명 방침 관철, 콩 농사 강화
	기 술	선진 영농 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알곡생산 제고
	요 소	농사에 필요한 영농설비,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

자료 : 조선중앙통신 2008년 1월 1일자.

- 또한, 북한의 식량 부족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서 일시적인 식량 지원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도 있음
  - 1995년 대홍수로 인한 식량위기 이후, 10여 년에 걸친 다양한 농정시책과 국제사회와 남한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부족 현상은 지속
  - 곡물 부족량을 매년 원조하는 것보다는 북한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면서 남한에도 이득이 되는
  -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상생의 효과를 내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2008년 식량 수급상황과 국제 곡물가격 파동으로 인한 북한의 곡물 수급 애로 현황을 살펴보고, 이의 극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2. 북한의 곡물 수급 및 대외 조달 현황

### ○ 1994/1995 ~ 2006/2007 양곡년도 북한의 곡물 수급 추이

- 1994/1995 ~ 2006/2007 양곡년도 기간중 북한의 곡물 국내 수급은 세계식량 계획의 최소 소요량 기준으로 평균 127만톤이 부족(자급률 80% 내외)
  - 동기간 동안의 곡물 수요는 연평균 528만톤에 달함(최소소요량 기준<sup>2)</sup>)
  - 그러나, 생산량은 연 평균 401만톤으로, 생산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자연 재해나 비료 지원 규모 등의 상황에 따라 매년 생산량 기복이 심함
- 북한은 연 평균 123만톤 부족한 곡물을 대외 조달하여 최소소요량 부족분을 충당해왔음
  - 국내 수급 부족분이 127만톤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소요량은 충족된 셈임

#### < 북한의 연간 곡물 수급 현황 >

(단위: 만톤)

양곡년도	생산량	최소소요량	국내 수급	대외 조달	과부족
94/95	413	512	-99	111	12
95/96	345	515	-170	105	-65
96/97	369	517	-148	163	15
97/98	349	521	-172	111	-61
98/99	389	523	-134	107	-27
99/00	422	526	-104	173	69
00/01	359	529	-170	140	-30
01/02	395	531	-136	141	5
02/03	413	533	-120	121	1
03/04	425	539	-114	98	-16
04/05	431	542	-111	136	25
05/06	454	548	-94	61	-33
06/07	448	524	-76	128	52
평균	401	528	-127	123	-4

자료 : 생산량(통계청), 최소소요량(농촌진흥청), 대외조달(KOTRA, 중국해관총서 등).

주 : 국내 수급은 양곡년도(당해년도 11월 ~ 익년도 10월) 기준이며, 대외 조달은 회계년도(당해년도 1월 ~ 12월) 기준임.

2) 최소소요량은 세계식량계획(WFP)의 기초대사량 수준 에너지 섭취량을 적용하여 산정. WFP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1인당 1일 2,130kcal의 75%인 1,600kcal를 사용

- 1995 ~ 2007년 기간 중 북한의 곡물 조달 내역을 보면 국제기구가 가장 많았으며, 중국, 한국의 수입
  - 동기간 동안 조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총 1,597만톤의 곡물중 약 2/3를 국제기구와 중국으로부터 조달했으며,
  - 남한으로부터는 전체의 1/5에 가까운 285만톤을 조달
- 북한의 곡물 대외 조달은 개별 국가별 지원(무상 또는 차관), 국제기구 무상지원, 그리고 상업적 수입으로 구성됨
  - 개별 국가별 지원은 중국, 한국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sup>3)</sup>
  - 국제기구는 가장 많은 무상지원을 해왔으나, 2005년부터의 지원 방식 변경, 핵실험 이후 미국의 지원 전면 중단으로 최근들어 급감<sup>4)</sup>
  - 북한의 상업적 수입은 태국으로부터 조달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

< 북한의 곡물 대외 조달의 세부 내역 >

(단위: 만톤)

	개별 국가별 지원(무상 또는 차관)							국제 기구	상업적 수입 (태국)	합계
	중국	한국	일본	EU	시리아	캐나다	소계			
95	15	15	37				67	28	16	111
96	55		13		14		82	20	3	105
97	87			12	3		102	58	4	163
98	29		6	8	10		53	58		111
99	24			2	6		32	75		107
00	28	50	11	4			93	51	28	173
01	44		50	2	1		97	44		140
02	22	40					62	59	20	141
03	35	40		1		5	81	30	10	121
04	9	40		0			49	30	18	98
05	33	50		2		1	86	40	10	136
06	39	10					49	12	1	61
07	81	40					121	8		128
합계	501	285	117	31	34	6	973	513	110	1,597

자료 : KOTRA, 「2006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7. 중국해관총서 등을 참조하여 구성.

- 주 : 1) 국제기구는 세계식량계획(WFP)의 합동 지원이 대부분이며, 기타 소규모 지원국을 합산
- 2)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 차관, 북한의 수입을 모두 합산한 규모임
- 3) 한국은 대북 직접 식량 지원만 포함하며,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국제기구에 포함.

- 3) 중국으로부터의 조달은 상업적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수입 단가가 저가로 책정되어 사실상 무상지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 2005~2007년 경우 북한이 수입한 중국 쌀의 톤당 가격은 각각 US\$ 25~32로 국제시세 및 한국 차관(US\$ 380)의 약 1/10 가격에 불과
- 4) 국제기구의 지원 방식은 유엔합동호소 방식에서 2005년부터 개별 지원 방식으로 전환

○ 2007/2008 양곡년도의 곡물 수급 현황

- (수요) 2007/2008 양곡년도의 북한 총 곡물 수요는 520~651만톤으로 추정
  - 세계식량계획(WFP)은 2007/2008 양곡년도의 북한 총 곡물 수요를 최소 소요량 기준으로 520만톤으로 추정<sup>5)</sup>
  - 반면, 통일부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정상적인 에너지 섭취량을 기준으로 2007/2008 양곡연도의 곡물 총 곡물 수요를 651만 톤으로 추정

< 북한의 연간 곡물 총 소요량 추정치 >

	WFP	통일부	비고
인구(천명)	23,854	23,450	2008.7월 추정인구
총소요량(만톤)	520	651	
- 식용	398	521	WFP 1인당 연간 167kg, 통일부 222kg
- 사료용	30	30	북한당국의 추정치
- 그 외	92	100	종자용, 가공용 외

주 : 1) WFP는 World Food Program(세계식량계획)  
 2) WFP 추정 북한 인구는 유엔 경제사회부 추정, 통일부는 한국 통계청 추정치.

- (생산) 2007년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380~401만톤 추정
  - 농촌진흥청은 2007년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2006년에 비해 11% 감소한 401만 톤으로 추정 발표
  -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380만톤으로 추정
  - 특히, 주식인 쌀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19% 감소
  - 곡물 수확량이 감소한 원인은 두 차례에 걸친 홍수 피해와 비료 공급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임<sup>6)</sup>

5) 북한은 긴급식량지원 국가로 취급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인당 1일 2,130 kcal의 75%인 1,600 kcal(연간 167kg)의 식용소요량으로 추정

6) 2007년 북한이 외부로부터 도입한 비료의 양은 378,864톤으로 2006년의 446,951톤에 비해 18%나 감소 (권태진, 「북한농업동향」 제9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1. p.10)

< 2007년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 추정 >

구 분	계	쌀	옥수수	맥류	두류	서류	잡곡	
재배면적(천ha)	1,610	587	526	137	139	201	25	
단위 생산량(톤/ha)	-	2.60	3.02	1.77	1.11	3.19	0.70	
2007생산량(만톤), A	401	153	159	25	15	47	2	
2006생산량(만톤), B	448	189	175	21	16	45	2	
2006대비	감소량(A-B)	-47	-36	-16	4	-1	2	0
	감소율(%)	-11	-19	-9	17	-2	4	0

자료 : 농촌진흥청, 2007. 12.

- (국내 수급) 이에 따라 2007/2008 양곡연도 중 북한은 최소 119만톤에서 최대 271만톤의 곡물 부족 예상

· 이와 같은 곡물 국내 수급 부족규모는 2002/03 양곡연도 이후 최대임

- (대외 조달) 2007/2008 양곡연도 북한의 곡물 대외 조달은 그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곡물가 상승, 북한 핵문제 해결 지연 등으로 국제 사회의 곡물 지원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3.3%에(2006년 국내총생산 기준) 달하여 국가 재정이 취약한 북한으로서는 급등하는 곡물가 부담을 감당하기 곤란함

○ ‘고뇌의 행군’ 시기와 2007/2008 양곡연도의 여건 비교

- 2008년 북한의 국내 식량수급 상황은 1995년도에 비하여 나쁘지 않은 상황임

· ‘고뇌의 행군’ 시기 국내 수급은 연평균 147만톤 공급 부족 상황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119만톤 공급 부족 상황임

· 1인당 최소 소요량 167kg으로 환산할 경우 ‘고뇌의 행군’ 시기는 연평균 880만명분, 2008년은 713만명에 해당하는 식량 규모임

< ‘고뇌의 행군’ 시기와 2008년도 곡물 부족 규모 비교 >

	94/95~97/98 4개년 평균	2008
곡물 생산량(A)	369만톤	401만톤
최소 소요량(B)	516만톤	520만톤
국내 수급 부족(C=A-B)	147만톤, 880만명분 <sup>1)</sup>	119만톤, 713만명분 <sup>1)</sup>
대외 조달(D), 한국 중국 제외	73만톤	3만톤(추정)
국제기구	41만톤	3만톤(추정) <sup>2)</sup>
기타 국가	26만톤	-
수입(태국)	6만톤	-
중국(E)	46만톤	나머지 116만톤은 대부분 한국, 중국의 부담이 될 전망
한국(F)	4만톤	
실제 부족분(C-D-E-F)	25만톤, 150만명분 <sup>1)</sup>	-

- 주 : 1) 최소 소요량 기준의 1인당 곡물 수요 연간 167kg으로 환산한 식량 부족 인원 수  
 2) 2005~2007 3개년도 국제기구의 대북 곡물 지원 평균액에 2008년 3월 곡물가격을 적용하여 산정(2008년 3월 곡물가격은 태국쌀과 옥수수 국제시세의 산술 평균)  
 3) ‘고뇌의 행군’ 시기를 1994/1995~1997/1998의 4개년으로 잡은 것은 국내 수급의 양곡 년도와 대외 조달의 회계연도의 시기적 상이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임  
 4) 최소 소요량은 WFP 기준  
 5) 1994/1995~1997/1998의 대외조달 곡물 규모는 반올림으로 수치에 오차 발생.

- 그러나,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 등으로 북한의 곡물 대외 조달 여건 악화
  - 미국을 포함한 국제기구는 2005년 이후 대북지원이 이전의 1/3수준인 5,500만달러(3개년 평균) 내외로 급감하고 있는데다가, 그중 곡물은 1,100만달러에 불과(동 금액은 2008년 3월 가격기준 3만톤 내외의 곡물에 해당)
  - 기타 국가도 최근 들어서는 거의 지원 실적이 없으며
  - 상업적 수입은 ‘고뇌의 행군’ 기간중 연 6만톤 정도에 달했으나, 최근의 경제 실적 악화에 곡물가 급등까지 겹치면서 2008년도 수입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의 식량 수출 억제 정책 실시로 인하여 북한의 대중국 조달 여건도 악화
  - 이에 따라 한국의 지원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7) 태국 조달 물량을 수입으로 가정

< 국제 사회 및 주요 북한 지원국의 대북 식량 지원 관련 입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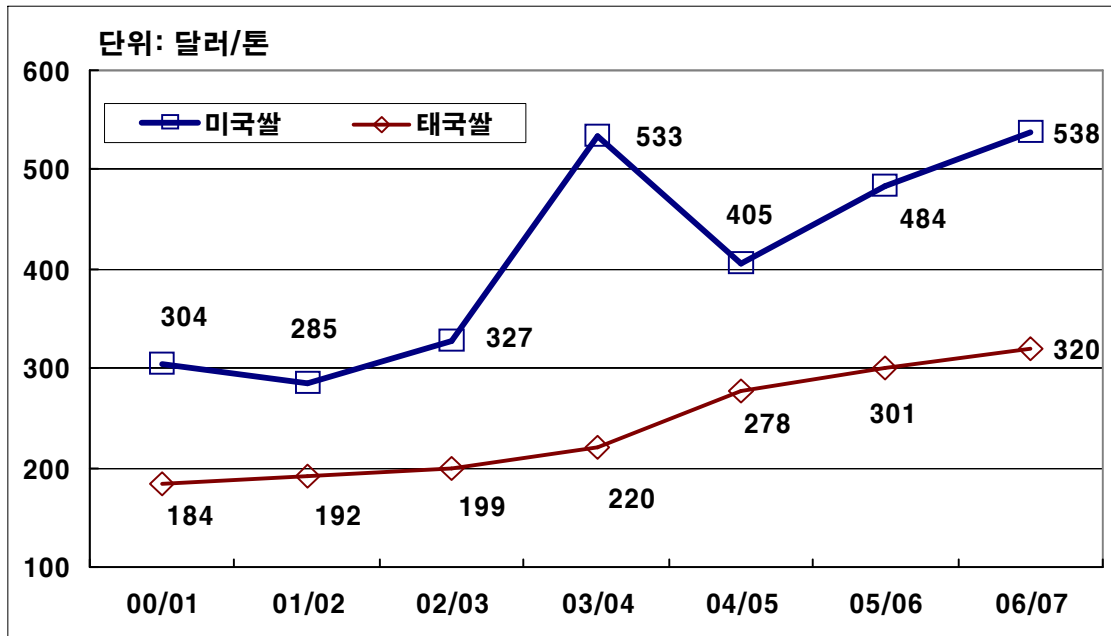
구분	입장 변화 내용
국제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 개별 지원으로 바뀐 이후 연평균 5,500만달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 식량은 20% 수준인 1,100만달러에 불과</li> </ul> </li> <li>- 식량자원화, 국제곡물가 급등 등으로 지원 물량 감소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으로 ODA 자금은 지역/국가별 지원 비율이 일정</li> </ul> </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년 북한의 대중국 쌀 수입 80만톤, 톤당 32.3달러</li> <li>- 식량 수출 억제 정책으로 선회하여 북한의 수입 여건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12.20부터 주요 곡물수출에 대한 13% 환급세제 폐지</li> <li>· 2008.1.1부터 5-25%의 수출관세 부과 및 식량 수출 쿼터제 실시</li> </ul> </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 대한 최대 식량지원국이었으나, 06년 핵실험 이후 전면 중단</li> <li>- 50만톤 지원계획 있으나, 핵문제와 연계</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만톤 식량 지원 가능하나 역시 핵문제 연계</li> </ul>

### 3. 국제 곡물가 급등

#### ○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글로벌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태국 쌀 가격이 2008년 3월 기준으로 520달러로 상승
- 태국쌀 가격상승의 이유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의 쌀 수요 증대와 수출 공급량의 부족 때문이며, 2008년 가격도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연도별 국제 쌀(FOB 기준) 가격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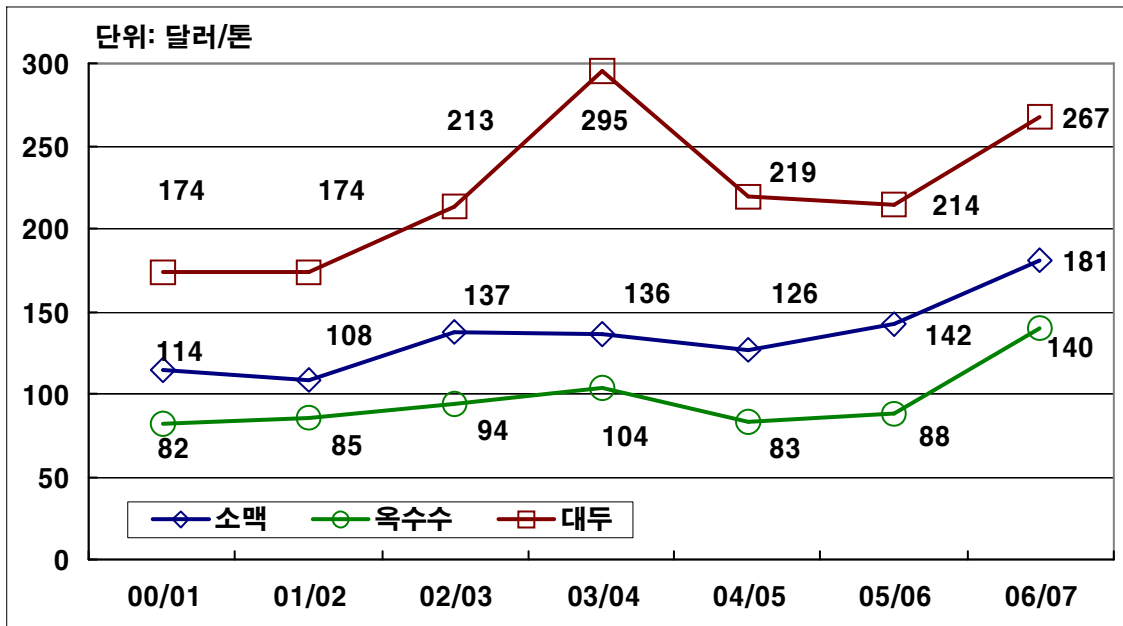


자료 : 미국농무부(USDA) ERS.

- 세계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면서, 곡물 재고량이 급감하였고 옥수수, 소맥, 대두의 국제 선물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음
- 미국 농무부(USDA)는 2008곡물연도(2007년 9월~2008년 8월)말 기준 쌀, 옥수수, 밀 등 세계 전체 곡물 재고율을 14.6%로 관측
- 이는 2007곡물연도 16.5%보다 1.9% 포인트 낮은 수치이고, 1985년 곡물 재고량이 최고 수준이었던 35%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급감
- 2008년 3월 현재, 국제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219달러로 상승



< 연도별 주요 곡물 국제 선물가격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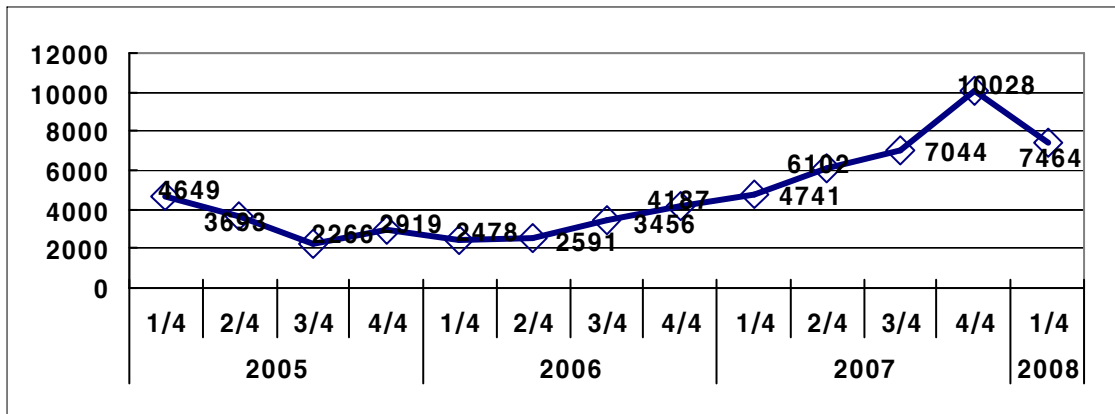
자료 : 미국농무부(USDA) ERS.

○ 국제 건화물 운임 상승

- 2007년 국제 건화물 운임지수(BDI 지수)가 연평균 7,112 포인트로 전년 대비 123% 상승하였고, 2008년에도 높은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 2007년 11월 13일 11,039의 최고점 이후, 2008년 상반기 들어서 BDI 지수는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나,
-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는 2008년 건화물선 시장의 운임이 BDI 기준으로 연평균 7,000~9,000 포인트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함
- BDI 지수의 상승은 중국의 원자재 수요 증가와 호주 항만 체선 및 운임선물시장(FFA)<sup>8)</sup>의 효과 증대로 인해 건화물선 수요가 폭증하였기 때문

8) 중국의 석탄 수입국 전환에 따라 한국 일본, 대만등 주요 수입국들이 호주 등지로 수입처를 옮기면서 호주 항만의 체선을 심화시켜 선박의 항만 대기 시간이 크게 늘어났고, 실물시장의 호황이 지속되면서 운임선물시장(FFA)에서의 투기자본 활동이 늘어 실물시장까지 영향을 미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세계해운전망」 2008. pp.63-71.)

< BDI 종합운임지수 분기별 평균 추이 >



자료 : 추세 데이터는 Baltic Exchange 자료

- 국제 해상운임의 상승은 곡물 수입 단가의 추가적인 상승으로 연결
  - 특히, 주요 곡물의 수출국이 미국과 남미에 집중되어 해상 운임 상승이 곡물 수입가 인상으로 연결

< 옥수수 대두의 운임포함가격(C&F) 동향 >

(단위: 달러/톤)

품목	2005 평균	2006 평균	2007.3	2008.2	2008.3	증감률(%)	
						전년동월	전월대비
옥수수	150	164	234	327	358	53.0	9.5
대두	290	278	345	634	633	83.5	0.2

자료 : 한국사료협회 2008년 3월 12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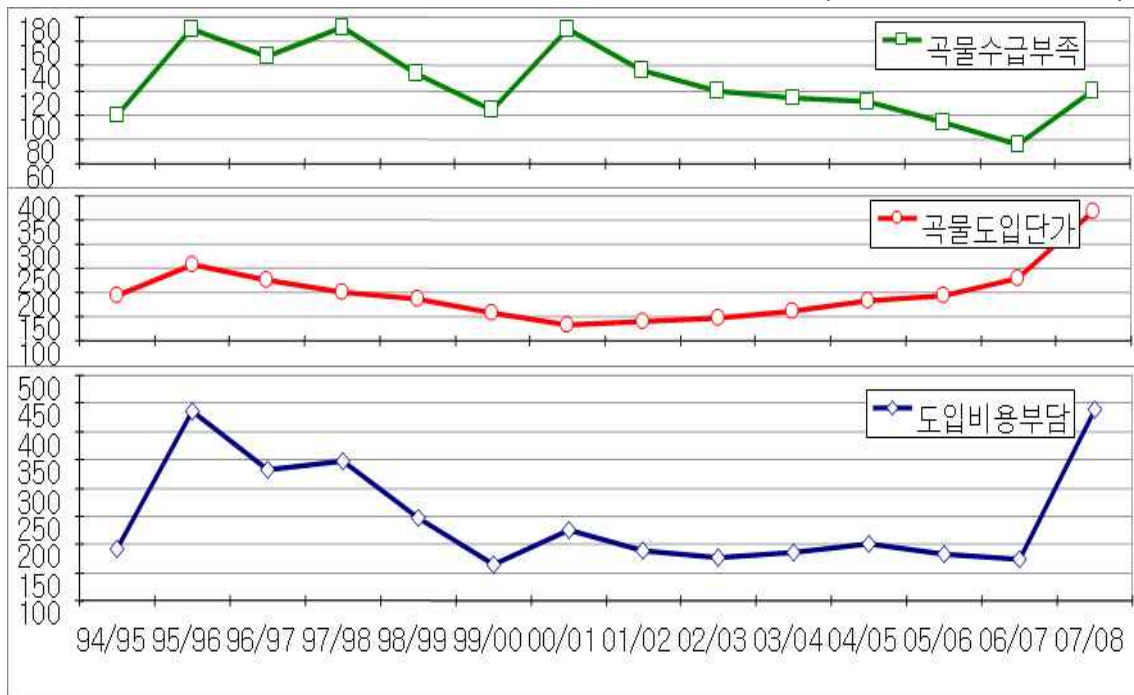
#### 4. 북한 곡물 조달부담 추이 및 2007/2008 양곡년도 현황

- 북한의 곡물 조달 부담은 1995/1996 양곡년도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였음
  - 북한의 곡물 수급 부족 규모는 1995/1996 양곡년도에 170만톤을 기록한 이후 00/01 양곡년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
  - 그러나, 1995/1996년 이후 국제 곡물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면서,

- 비용 측면에서의 곡물 부족분 조달 부담도 크게 감소했음
  - 또한, 00/01 양곡년도 이후에는 국제 곡물가가 완만한 상승세를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곡물 수급 부족이 빠른 속도로 완화되면서 조달 부담이 감소
- 그러나 2007/2008 양곡년도는 1995/1996 양곡년도보다 더 많은 4억 4천만 달러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2008.3.27 현재가격 기준)
- 2007/2008 양곡년도 곡물 수급 부족 규모가 119만톤으로 전년의 79만톤에 비하여 50% 급증한 데다가
  - 국제 곡물 가격의 급등으로 북한의 주식인 쌀과 옥수수 국제시세가 평균가 기준으로 2006/2007 곡물년도 230달러/톤에서 370달러/톤으로 60% 이상 상승했기 때문임
  - 특히, 지난 1995/1996 곡물년도의 수급 부족 170만톤에 비하여 부족량이 50만톤 정도 작은 데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은 오히려 더 커짐

< 북한의 곡물 수급부족 및 비용부담 추이 >

(단위: 톤, \$/톤, 백만달러)



#### 4. 정책적 시사점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남북간의 정치적 관계나 상호주의 원칙과는 상관없이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은 우리와 한 민족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식량 부족 문제를 도외시킬 수 없음
    - 특히 식량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남북한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상호주의 원칙보다 우선 하는 것임
  - 또한, 민족이나 통일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남한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북한 내부적인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함
    - 식량문제로 인하여 북한 내부 사회에 혼란이 오거나 대량의 탈북자가 발생할 경우 남한도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며
    - 아울러, 남한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일어날 수도 있음
- 2008년 북한의 식량난은 1995년 대비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어서 조속한 대규모 식량 지원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
  - 국제 사회의 대북 원조가 급감하여 북한으로서는 중국, 한국 등 주요국의 지원이 없을 경우 713만명분에 해당하는 119만톤의 조달 방법이 별로 없음
    - ‘고뇌의 행군’ 시기 국내 곡물 수급량은 평균 880만명분 147만톤이 부족했으나, 2008년은 713만명분 119만톤이 부족
    - 그러나, ‘고뇌의 행군’ 시기는 국제 사회의 지원이 많아서 실제 부족분은 연평균 25만톤(150만명분)으로 축소
    - 2008년은 북한의 핵실험, 국제곡물가 급등 및 식량 자원화로 대북 식량 지원 규모가 급감한 가운데
    - 국제 곡물가 급등으로 인하여 북한의 곡물 수입 능력마저 제한
  - 이에 따라, 인도적 차원의 북한 식량지원이 조속히 실시되어야 할 것임
    -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남북, 북미 등 정치적 관계의 경색 여부를 떠나서 인도적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 상시 대화채널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북한에 대한 남한의 식량 지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북한의 곡물 생산성은 2001년 이후 개선되고 있지만, 2008년에도 119만톤의 식량이 부족

- 금액 기준으로는 2008년 3월 기준 4.4억달러, 원화로는 5천억원 규모
- 이는 최소 소요량만을 감안한 지원 부담이며, 정상적 소요량을 감안할 경우 두배에 달하는 10억달러(1조원) 수준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 궁극적으로는 상당 부분 남한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남한 정부는 국제 사회의 대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함

- 이를 위해서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관계국은 외교적 이해관계를 감안한 설득 노력이 필요하며
- 이외 국가들이나 국제기구에는 북한의 식량 부족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 북한에 대한 ODA 증액을 유도해야 함

○ 대북 식량 지원 항구화를 막기 위한 농업 생산성 제고 정책이 필요함

- 인도적 차원의 원조에만 의존하는 일방 통행식 교류는 주는 쪽에는 원조 피로감을, 받는 쪽에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와 자구 노력의 동기를 박탈

- 남한 수준의 생산성 달성시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정상적인 에너지 섭취량 수준의 곡물 자급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북한에 대한 농자재 원활한 공급으로 기초 대사를 위한 최소 소요량 520만톤을 초과하는 530만톤의 곡물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며
- 이모작 확대 등 남한 기술 수준을 적용할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정상적인 에너지 섭취량 651만톤을 초과하는 704만톤의 곡물 생산까지도 가능

< 북한의 곡물 자급생산 가능성 >

작물	현재(2007/2008) <sup>1)</sup>			농자재 원활 공급 <sup>2)</sup>			이모작 확대 남한 기술 수준 <sup>3)</sup>		
	면적 (천ha)	수량 (톤/ha)	생산량 (만톤)	면적 (천ha)	수량 (톤/ha)	생산량 (만톤)	면적 (천ha)	수량 (톤/ha)	생산량 (만톤)
쌀	587	2.60	153	587	3.48	204	587	4.90	288
옥수수	526	3.02	159	526	4.00	210	526	4.64	244
맥류	137	1.77	25	137	2.25	31	137	2.65	36
두류	139	1.11	15	139	1.30	18	139	1.68	23
서류	201	3.19	47	201	3.12	63	201	5.24	105
잡곡	25	0.70	2	25	1.76	4	25	3.28	8
계	1,615		401	1,615		530	1,615		704

자료 : KREI,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개방정책과 남북협력" p.376 인용하여 재추정.

주 : 1) 농촌진흥청 2007.12 "2007 북한 곡물 생산성 추정"

2) 북한 곡물 생산이 최고 수량을 보였던 1980년대 중반(1986~1988 평균) 수량 적용

3) 품종 및 재배기술이 남한의 현재 기술 수준까지 향상된다고 가정하여 2006년 남한 곡물 생산성 적용(농림수산부 2007통계자료).

-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농업 생산성 제고 지원 필요

- 농기계 및 자재, 비료, 신품종 종자 보급, 노후화된 관개 시설 정비, 경사지 사방사업 실시 등 물자적인 측면의 지원뿐만 아니라,
- 남북한 농업기술교류협력센터 설치를 통하여 종자 개량, 이모작 확대 등의 농업 기술 지원 및 공동 연구가 필요하며(관련 기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연구소, 농업생명공학연구소 등)
- 보다 장기적으로는 비료·농기계 공장 등 시설 현대화와 산업 발전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제 곡물가격 급등과 식량자원화 추세에 대응하여 남북한 상생의 농업협력모델 구축이 필요함

- 북한 곡물 수급 안정성을 도모하고 남한에도 도움이 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다음을 포함

- 남북한 공동의 해외 농업 개발,
- 남북한간 비교우위 작물의 교류를 통한 상호 이익 증대,
- 남한의 자본 및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농업 협력특구 설치

- 첫째, 남북한 공동의 식량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 농업기지 공동 개발
  - 남한은 곡물 자급률이 29% 정도로 곡물 수입국이며, 북한도 향후 경제 발전 시 대량의 곡물을 수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남북한 공동으로 해외 식량 자원기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연해주, 몽골 등지의 북한과 가까운 지역에 남한의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식량기지 개발 가능
  
- 둘째, 남북한 주요 식량 자원인 쌀과 옥수수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차이에 따른 남북 곡물 교류 증진
  - 2006년 기준,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쌀 95.3%, 밀 0.2%, 옥수수 0.8%, 콩 13.6%로 대부분의 곡물은 수입<sup>9)</sup>에 의존하나 쌀은 매년 80만톤의 재고 발생
  - 반면 북한은 한국에 대해 옥수수가 비교 우위에 있음<sup>10)</sup>
  - 이를 통하여 한국은 쌀의 수급 안정과 함께 유전자 변형(GMO) 논란에 대한 안정성 및 바이오 연료 개발 등으로 향후 수요가 확대될 옥수수를 확보하는 장점이 있으며,
  - 북한은 쌀 자급률을 제고하고 비료나 신품종 종자 등 확보를 통하여 곡물 수급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음

< 최근 3개년 남북한 주요 곡물 생산량 비교 >

(단위: 만 톤)

	쌀		옥수수	
	남한	북한	남한	북한
2004	500	180	8	167
2005	477	202	7	163
2006	468	190	7	175

자료 :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통계자료.

9) 옥수수는 매년 식용 210만톤과 사료용 740만톤, 밀 식용 230만톤, 사료용 110만톤, 콩 식용 30만톤, 사료용 90만톤 수입에 의존

10) 남한의 옥수수는 사양작물인데 반해 북한은 장려 작물로서 옥수수 연구 인력이 남한의 50배인 500명(국내 연구자 10여명)이상이며 보조연구자까지 합하면 수만 명에 달하는 제반 조건으로 볼 때 옥수수만은 북한이 남한보다 열등하다 할 수 없음



- 셋째, 개성 등지에 농업협력특구 설치를 통하여 북한을 중국을 대체하는 농산물 수입국으로 전환
  - 북한은 지리적 여건, 농산물 검사 및 관리,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 측면에서는 중국에 비하여 절대적인 비교우위가 있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개성 등의 지역에 농업협력특구를 설치하고 남북한 공동 농업 발전 모델을 개발 및 발전
  - 기본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추진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초기 지원 필요

조 호 정 연구원(☎ 3669-4047, chjss@hri.co.kr)

<부록 1> 국제 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995.9~2007.12

구분	목표 (만달러)	실적 (만달러)	실적율 (%)	국가별지원액(만달러)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등
2차 '96.7~'97.3	4,364	3,439	78.8	EU 860,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5 등
3차 '97.4~12	18,439	15,838	85.9	미국 4,537, EU 2,752, 일본 2,700, 한국 2,533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한국 1,087, EU 953, 덴마크 357, 캐나 다 354, 노르웨이 304, 스웨덴 279, 호주 130 등
5차 '99.1~12	29,208	18,989	65.0	미국 16,07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노르웨이 232, 호주 228, 덴마크 195, 핀란드 72등
6차 '00.1~12	31,376	15,310	48.8	일본 9,566, 미국 2923, 호주 666, EU 478, 스웨덴 280, 노르웨이 229, 캐나다 171, 덴마크 151등
7차 '01.1~12	38,398	24,797	63.5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1,579, 이탈리아 708, 독일 291, 호주 289, 스웨덴 244등
8차 '02.1~12	24,684	22,001	89.1	미국 6,349, 한국 1,624, EU 947, 호주 339, 캐나다 245, 스웨덴 228, 영국 171, 노르웨이 144등
9차 '03.1~12	22,937	13,310	58.0	미국 3,152, 한국 1,683, EU 1,602, 러시아 1,000  탈리아 652, 캐나다 437, 스웨덴 407등
10차 '04.1~12	20,880	15,158	72.6	일본 4,660, 한국 2,509, 미국 1,906, EU 1,557, 스웨 덴 910, 호주 797, 캐나다 477등
'05.1~12		4,523		유럽연합 1,322, 독일 777, 스웨덴 549, 한국 107등
'06.1~12		1,915		한국 728, 스웨덴 498, 노르웨이 221등
'07.1~12		9,966		한국 2,437, 유엔긴급지원자금 1,110등

자료 : <http://www.reliefweb.int>(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Jan. 31, 2008).

- 주 :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실제 지원된 금액만을 집계한 것임
- 2) 2005년부터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통합지원은 폐지되고 개별지원으로 전환됨
- 3) 긴급수해복구 지원도 포함.

<부록 2> 북한의 과거 호우 피해 실태

구분	시기	피해지역	주요피해상황
1995	'95.7.31~8.18	신의주, 강원, 황해 등 8개 지역 145 시·군	-사망·실종:68명, 이재민:520만 명 -주택파괴: 98,000세대 -농경지: 36만 정보침수·유실 -저수지 붕괴: 102개소, 제방붕괴: 13,065km -피해추정액 120억불
1996	'96.7.24~28	신의주 강원, 황해	-사망·실종:116명 -이재민:327만명 -농경지: 26만 정보침수·유실
1999	'99.7.31~8.3	개성, 황해 평남, 강원	-농경지 4만여 정보 침수, 2,300여 정보 유실·매물 -도로 및 철로 파손 -수백여세대의 주택 손실
2002	'02.8.3~5	개성, 황해 평안	-주택, 도로, 다리 등 파손 -농경지 유실 -수십명의 사상자·행불자 발생
2004	'04.7.1~25	황해, 평남 강원, 양강	-농경지 유실 10만여 정보 -철로 및 도로 파손 -전기·통신시설 파손
2005	'05.6.30~8.4	평양, 평남 평북, 함남	-사망·행불 500여명 -주택 14,000세대 침수
2006	'06.7.10~16	황해, 평안 강원, 함남	-사망·행불 150명 -농경지 2만 7천 정보 -공공건물 500여 동, 교량파괴 80개소 -도로파괴 400km, 철교 10여 개소 등
2007	'07.8.7~17	평양, 황해 평안, 강원 함남	-300여 명 사망·실종, 이재민 30여만 명 -농경지의 11%이상 침수 -철도·도로 피해 540여 개소 -공장·기업소 400여 개 침수 등

<부록 3>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합의서 주요 내용(2007.12.6)

구분	주요내용
경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성-신의주 철도의 개보수 협력</li> <li>●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문제 협력</li> <li>●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제반문제 조속 해결</li> <li>● 남북공동이익을 위한 자원개발 협력 추진</li> <li>●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 협력 추진</li> <li>● 투자환경 조성 및 제도적 장치 마련</li> <li>● 수출 및 투자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 협의</li> <li>● 남북경협공동위 제2차 회의를 2008년 상반기 중 평양에서 개최</li> </ul>
농수산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및 수산분야 협력을 호혜적인 방식으로 추진</li> <li>-종자 생산·가공시설 및 유전자원저장고 건설 관련 현지조사 실시</li> <li>-검역 및 방역, 유전자원 교류 및 공동연구, 농업과학기술 교류 등 협력 사업 2008년 내로 착수</li> <li>-북측 동해 일정한 수역에서의 수산협력사업 우선 추진</li> <li>-12.14~15 「농수산협력분과위」 개최(개성)</li> </ul>

자료 : 통일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2007.12

<부록 4> 제1차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합의서(2007.12.15)

구분	주요내용
농업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 조속 추진</li> <li>- 현지조사: 12.21~24, 규모 20명, 기반시설 등 입지여건 조사</li> <li>- 북측은 기초자료 및 편의 보장, 남측은 설비와 물자 제공</li> <li>- 공공 연구를 위해 2008년 3월 중 기술 협의 개최</li> <li>● 검역체계 확립 및 관련 협력 추진</li> <li>- 정보 교환, 검사·소독장비 현대화, 예방·진단·약품 등 협력 및 과수·채소·잡업·축산 농업과학기술 협력 추진</li> </ul>
수산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분야 공동이익을 위한 협력사업 적극 추진</li> <li>- 북측 동해어장의 일정 수역에서 남측어선 입어 및 어로활동 실시</li> <li>- 수산물 생산, 가공, 우량품종 개발, 양식분야 협력 추진</li> <li>- 생산, 가공된 수산물의 효율적 유통을 위한 협력 추진</li> </ul>

자료 : 통일부,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2007.12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경기 하강 초기 국면 진입

○ 현재의 경기 국면을 나타내 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월에 101.2에서 3월에 100.9로 다시 하락함에 따라, 국내 경기가 2008년 1월을 고점으로 하강 국면에 진입하였을 가능성이 높아짐

- 3월 국내 생산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0.0%를 기록하였으나, 이를 출하 기준으로 살펴보면 내수 출하증가율이 4.1%에 그친 반면, 수출 출하 증가율이 15.7%에 달하고 있어 생산활동의 상당 부분을 수출이 견인하고 있다고 판단
- 소비재판매액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4.2%로 2월의 2.9%보다는 소폭 회복되는 조짐을 나타냄
- 한편 설비투자 증가율과 건설기성 증가율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0.4% 및 3.3%에 그치고 있어, 투자 부문 부진이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임
- 향후 국내 경기의 방향성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2007년 11월을 고점으로 이번 3월까지 4개월 연속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 하강세가 더욱 빨라질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2008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경기	경제성장률	5.1	5.0	5.1(1.5)	5.7(1.6)	5.7(0.7)	-	-	-	
	수요	소비재판매	4.1	5.3	7.1	4.5	3.8	2.9	<b>4.2</b>	-
		설비투자추계	8.9	8.6	0.7	9.2	-1.0	-1.9	<b>0.4</b>	-
		건설수주	9.0	19.3	-5.6	29.5	-3.9	-6.2	<b>5.3</b>	-
		수출	14.4	14.1	9.4	18.2	17.5	18.8	18.6	<b>27.0</b>
		공급	광공업생산	8.3	6.8	6.0	11.0	10.5	10.2	<b>10.0</b>
	공급	취업지수 (만명)	2,315	2,343	2,361	2,358	2,305	2,288	2,331	-
		실업률 (%)	3.5	3.2	3.1	3.0	3.4	3.5	3.4	-
		수입	18.4	15.3	7.3	25.9	28.2	27.6	25.9	<b>23.7</b>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54	60	44	32	-52	-24	-1	-
무역수지 (억\$)		161	146	45	27	-59	-12	-7	<b>0</b>	
물가	소비자물가	2.2	2.5	2.3	3.3	3.8	3.6	3.9	<b>4.1</b>	

주 : 경제성장률의 (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원/달러 환율 연중 최고치 경신

○ (해외 금융 시장) 달러화 향방 혼조

- 금리: 4월 고용통계 부진, 주택가격지수의 대폭 하락, 소비자신뢰지수의 5년만의 최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주말 대비 소폭 하락 (국채 10년물 : 3.86→3.78%)
- 환율: 달러화는 미국의 비농업부문 생산성 지표의 호전 등으로 유로화에 대해 소폭 강세를 보였으나, 미 주택경기 지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엔화에 대해서는 약세 시현 (\$/€ : 1.5424→1.5394, ¥/\$ : 105.40→103.94)

○ (국내 금융 시장) 원/달러 환율 연중 최고치 경신

- 주가: 연일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유가와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 등이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며 국내 증시 상승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전주말 대비 하락 (1,848.3→1,823.7)
- 금리: 국내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 5월 8일 개최되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4.88%까지 하락하였으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도 높아지면서 반등하여 4.98%로 마감 (국고채 3년 수익률, 4.90→5.22%)
- 환율: 원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정유사 등 수입업체들의 결제수요, 외국인 주식 매도분 관련 역송금 수요 등에 따른 요인으로 급등세를 보였음 (1,009.6→1,044.6)

○ (전망) 환율 급등에 따른 소폭 하락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6	2007				2008		
		4/4	1/4	2/4	3/4	4/4	1/4	5.2	5.9 <sup>1)</sup>
국내	거래소 주가	1,434.5	1,452.5	1,743.6	1,946.5	1,897.1	1,703.9	1,848.3	1,823.7
	국고채3년(%)	4.92	4.76	5.26	5.46	5.74	5.10	4.90	5.22
	원/달러	929.8	940.9	923.8	915.1	936.1	990.4	1,009.6	1,044.6
해외	DOW	12,463	12,354	13,409	13,896	13,265	12,263	13,058	12,867
	Nikkei	17,226	17,288	18,138	16,786	15,308	12,526	14,049	13,943
	미국채10년(%)	4.70	4.57	5.02	4.59	4.02	3.41	3.86	3.78
	일국채10년(%)	1.69	1.60	1.88	1.69	1.51	1.29	1.65	1.67
	달러/유로	1.3199	1.3354	1.3542	1.4267	1.4593	1.5788	1.5424	1.5394
	엔/달러	119.07	117.83	123.18	114.80	111.65	99.70	105.40	103.94
	두바이(\$/배럴)	56.71	63.12	66.42	76.64	89.06	97.66	104.86	116.48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5.8) 기준

# 내 인생 최고의 멘토를 만나다!

## Creative business contents tank, Usociety

21세기는 지식 경쟁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트렌드, 나만 뒤쳐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비즈니스맨들의 창조력 충전 및 경쟁력 확대를 위한 지식 정보 콘텐츠,  
 Usociety에서 만나보세요.

### 비즈니스 지식 정보 TV, CreativeTV.co.kr

창조의 5분, 성공의 5분! 그 5분을 위한 다이제스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Usociety의 미션입니다.  
 HD VIDEO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지혜를 나누십시오.



### 글로벌 비즈니스의 완성, EBS 어학 프로그램

최고의 어학 강의, EBS 어학 콘텐츠! 국내 대표 강사진들의 명 강의로 구성된 3,200편 이상의 풍부한 어학 프로그램을 Usociety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Business	Conversation	Global
영어인터뷰 START 인터뷰 영어족보 비즈니스영어 모질게 new TOEIC 비겁한 new TOEIC 외	Style English Survival English 영어 말하기 START Oxford 회화 말미잘 English 외	리듬 중국어 입문 이키이키 일본어 러시아어 첫걸음 스페인어 첫걸음 터키어 첫걸음 외

### 차별화된 경쟁력, Competency Tools

#### 지식노트

경제, 사회, 문화에서 저널까지 한 눈에 보는 weekly webzine

#### U-Times

지식 트렌드를 손에 잡을 수 있는 콘텐츠 매거진

#### U-Planner

프로페셔널리즘의 시작, 웹 프랭클린 플래너

#### eBook

비즈니스에서 교양까지, 신간으로만 채워지는 digital library